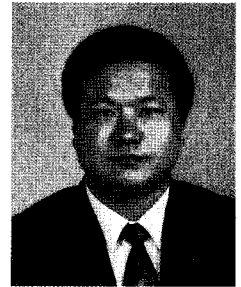




## 흰진달래

- ▶ 과명 : 진달래과
- ▶ 학명 : *Rhododendron mucronulatum for. albiflorum*
- ▶ 한명 : 白杜鵑花
- ▶ 일명 :しろばなげんかいつつじ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흰진달래를 대량으로 번식하신 분이 계신다 하여 2004년 4월 하순에 충남 청양군에 출장하여 안중관씨를 만나뵈신 적이 있다.

청양군의 명산인 칠갑산에 드물게 자생하는 흰진달래가 매년 도취되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 번식시켜서 자생지에 복원해보자는 의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익히신 지식을 총동원하여 '75년도부터 번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기를 수십차례 '95년에야 겨우 번식에 성공하였다. 번식법에 대한 특허출원은 물론 매년 대량생산 체계를 수립하여 상당량의 흰진달래를 번식하여 지금은 매년 늘어나는 흰진달래 어린 묘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 분을 뵈고 나무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 고마운 마음에 첫 만남에도 의견이 투합되어 대 낮에 몇병의 소주를 혼 낸적이 있어 이 나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흰진달래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후보종에 등재되어 있으며 경기도와 경북, 그리



▲ 흰진달래

고 층남에 자생하는 귀한 나무이다. 일본에서는 대마도에도 나지만 세계적으로 귀한 식물임에 틀림이 없다.

### 1. 생태적 특성

흰진달래는 표고 250m 내외에서 연한 홍색의 진달래 틈에 섞여서 군생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가 3m까지 자라며, 밑에서부터 여러개의 줄기가 올라와 수형을 만드나 진달래보다는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약하고 번식력도 떨어진다.

낙엽활엽 작은키나무로 여러개의 줄기가 올라와 둥근 형태의 수형을 만드는데 양지쪽보다는 반음지에서 잘 자라고 산성토양에서 잘견딘다. 특히나 흰진달래는 자생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상 피침형이며 길이 4~7cm, 넓이 1.5~2.5cm로서 양면에 흑 모양의 비늘조각과 털이 흩어져 있고 약간 광택이 난다. 꽃은 양성화로서 3~6개가 가지끝에 모여 피며 화관은 지름 3.0~4.5cm로 순 백색이고 4월에 잎보다 먼저 핀다. 열매는 길이 2cm정도의 삭과(蒴果)로서 짧은 기둥 모양이고 10월에 익는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주목이나 사철나무 등으로 수벽을 만든 다음 그 앞에다 서너그루 모아 식재하면 잎이 피기 전에 피는 순백색의 꽃은 심지가 깊고 지조 높은 선비의 사랑방 앞 정원에 식재하기 안성마춤이다. 큰 나무 아래나 산소 주변, 오래된 한옥 돌담아래 식재하여 순 백색의 꽃을 감상하는 것은 삶의 질

을 한층 높여 줄 것이다.

### 4. 번식법

번식은 10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기진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마사토와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혼합하여 만든 상토에 파종하거나 봄에 삶은 이끼에 파종하면 번식이 가능하다. 대량으로 번식할 때는 파종상을 만든 다음 10cm두께로 황토를 체로 쳐서 간 그위에 파종하고 복토는 하지 않으며 배수로에 물을 대어 밑에서부터 물이 파종상에 스며 올라오게 하여도 발아가 가능하다.



▲ 흰진달래

### 5. 그 밖의 용도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잎을 날로 먹거나 꽃잎에 술을 부어 두견주를 담그기도 한다.

꽃이나 뿌리 또는 줄기와 잎을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꽃은 4월에, 뿌리는 9~10월에 채취하여 신선한채로 혹은 햇볕에 말려서 토혈(吐血), 장풍하혈(腸風下血), 이질(痢疾), 혈붕(血崩), 타박상(打撲傷)에 15~30g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달인 물로 씻는다. 